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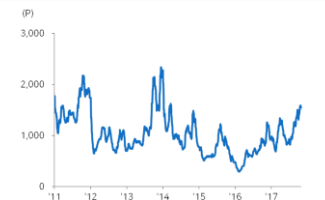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584.8	20.9	151,500	2.7	4.5	-15.8	9.4	54.5	123.3	0.8	0.8	1.3	0.6
현대중공업	7,011.4	20.5	430,500	0.1	1.1	0.9	NA	4.7	5.3	0.9	0.8	19.4	15.8
현대건설기계	936.3	5.2	235,000	1.5	2.2	-21.7	NA	11.5	7.8	1.1	1.0	9.5	13.1
현대건설기계	1,498.8	9.2	377,000	-1.0	1.2	15.9	NA	11.7	9.0	1.5	1.3	13.1	15.8
삼성중공업	4,563.0	18.6	11,700	5.4	4.5	1.7	26.5	59.4	126.6	0.7	0.7	1.2	0.6
대우조선해양	N/A	2.4	N/A	N/A	N/A	N/A	N/A	N/A	N/A	N/A	N/A	17.6	9.1
현대미포조선	2,010.0	13.2	100,500	3.9	6.8	-8.2	49.6	9.9	34.1	0.8	0.8	8.9	2.4
한진중공업	400.3	4.3	3,775	2.7	-0.7	-15.6	12.2	-11.8	8.5	0.5	0.4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379.4	30.8	56,000	2.9	12.1	-1.2	-2.4	10.4	9.9	1.5	1.4	15.9	14.6
두산벌크	3,699.2	24.6	36,900	-0.7	1.0	6.8	2.9	16.2	14.8	1.0	1.0	6.6	6.7
현대로템	1,508.8	28.2	17,750	-0.3	0.3	-8.0	-2.2	33.6	22.7	1.1	1.0	3.2	4.6
하이코리아	334.9	47.6	24,600	2.5	16.6	7.0	16.6	12.9	11.4	1.1	1.0	8.5	9.0
성광벤드	277.7	14.5	9,710	2.0	4.0	-1.4	9.6	31.4	18.1	0.6	0.6	1.9	3.2
태광	263.9	16.7	9,960	1.7	7.2	1.8	20.1	37.2	20.6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958.9	8.9	18,400	1.1	7.6	-11.5	-32.4	34.4	10.5	0.6	0.6	2.3	5.9
두산인프라코어	1,996.1	10.5	9,620	-0.5	17.2	24.5	9.1	10.7	9.0	1.0	0.9	8.9	9.8
두산엔진	277.0	4.7	3,985	5.7	-0.1	0.0	21.3	24.1	23.2	0.5	0.5	2.1	2.2
한국항공우주산업	5,536.6	20.4	56,800	2.3	30.0	10.9	-15.2	43.5	22.7	3.7	3.3	8.5	15.0
한화테크윈	2,064.6	20.5	39,250	5.5	18.2	-1.4	-9.7	24.6	18.3	0.9	0.8	3.6	4.7
UG텍스원	1,678.6	19.8	76,300	-0.3	4.8	-7.5	-5.2	16.6	15.5	2.3	2.1	16.2	14.4
태웅	365.1	2.8	18,250	3.1	9.6	-23.5	-18.7	47.2	16.1	N/A	N/A	1.2	3.5
동성화학	132.5	3.5	4,910	0.0	-1.5	-19.2	-14.6	N/A	N/A	N/A	N/A	N/A	N/A
한국카본	256.7	16.5	5,840	0.0	0.0	-3.2	-3.5	19.6	26.4	0.8	0.8	4.1	3.0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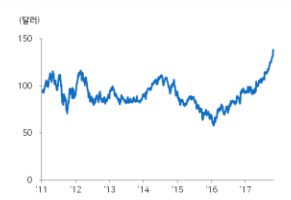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9 154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Caterpillar(CommonStock): +0.87 137.81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W: 신조선가 지수 125p, 중고선가 지수 91p(+1 WoW) 기록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 지수는 125p, 중고선가 지수는 91p(+1 WoW)을 기록함. 폴라리스 쉬핑은 현대중공업에 32.5만DWT급 VLCC 5척을 추가 발주함. 또 대한해운도 같은 선종 2척을 현대중공업에 발주함. 중국 Jiangsu New YZJ는 Zihni Group에서 8.2만DWT급 1+1척 벌크선을 수주함. (Clarksons)

Kvaerner in high bidding activity

노르웨이 엔지니어링 회사 Kvaerner는 매출침체에 따라 3분기 이익이 감소했음에도, 활발한 입찰 활동을 통해 계약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회사 관계자는 특히 내년 초에 결정될 Statoil의 Johan Castberg FPSO의 Topside 수주가능성을 언급함. 또 최근 몇 년간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 중으로 알려짐. (Upstream)

ExxonMobil profit booms in Q3

오일메이저 ExxonMobil은 석유와 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총 생산량 증가에 따라 3분기 40.9억달러 순이익을 기록하며, 전년동기 28.9억달러 대비 41.5% 증가함. 반면 3분기에는 허리케인 Harvey 영향으로 약 1.6억달러 손실이 발생했고, 또 석유화학 부문에서 실적 하락이 있었음. (Upstream)

Profits leap for Chevron

오일메이저 Chevron은 3분기 매출은 340억달러로 전년동기 290억달러 대비 17% 증가했고, 순이익은 20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 13억달러 대비 54% 증가함. 회사 관계자는 석유 및 가스 생산 증가 및 CAPEX 감소에 따라 현금흐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번복점에 있다고 언급함. (Upstream)

ASEAN crude imports to double by 2040

IEA 전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원유 수입은 수요증가로 2040년까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원유 수입량은 하루 210만배럴에서, 2040년까지 550만배럴로 증가할 전망이다. 수요증가 예측은 향후 차량 수요 증가에 근거함. 또 발전 및 산업 부문 소비 증가로 천연가스 수요 증가도 예측됨. (TradeWinds)

Downgrade for Dorian as DNB drops VLGC forecasts

DNB Markets은 VLGC 운임 예상치를 낮추며, Dorian LPG의 목표주가를 낮춤. 올해 미국의 낮은 가동률에 따라 수출이 예상보다 낮아 운임도 상승하지 못함. 17년 VLGC Spot 운임은 하루 1.55만달러 수준에 형성됨. 18년 전망치는 2.9만달러에서 2.1만달러로, 19년은 3.5만달러에서 3.1만달러로 낮춤. (TradeWinds)

Total profit soars

오일메이저 Total은 유가상승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 3분기 순이익이 27.2억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19.5억달러 대비 39% 급등함. 평균 생산량은 하루 250만배럴로 전년동기 244만배럴 대비 약 6% 증가함. 또 올해 말부터 Yamal LNG 등이 추가되면서 생산량이 추가로 증가할 전망이다. (Upstream)

Eni returns to profit

오일메이저 Eni는 유가상승과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분기 흑자로 돌아섬. Eni는 3분기 3.44억달러(4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동기 5.6억달러 적자에서 회복한 기록임. 특히 E&P 부문에서 실적개선이 크게 나타났고, 실적개선은 유가가 전년동기 35달러에서 약 18% 상승한 것에 기인함. (Upstream)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0월 3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정조정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0월 3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0월 30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